



# 보도자료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단체명	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도천수
담당자	전석규 팀장 / 010-2733-6817	담당자	위원장/ 010-2363-9816
		E-mail	koreavision@hanmail.net
사진	0	영상	X 기타 첨부자료

## 민주당 선대위 '시민사회위원회' 27일 정책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시민사회위원회는 27일(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웅래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보다 공평한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 일자리와 고용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좋은 대안을 제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안병원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도 “공평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이며 대한민국이 대전환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자 도천수 공평코리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나 비전이 비슷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으며 차별성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 차별성을 위해서 공정이라는 표현보다 ‘공평국가’라는 슬로건을 제안하면서, 공평국가의 대표적인 과제로 부동산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석열 후보와 명확하게 차별화된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발제자 양재덕 국민일자리포럼 대표는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과 함께 정부도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개념의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일자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셋째 발제자 이종수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공정성장을 위한 대선전략 논의의 출발점은 기후변화, 일자리, 소득불공정, 서민주거 및 부동산, 지방소멸, 디지털정책 교육 개편 등이며 예상되는 2022년 국정과제는 책임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효율성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선의 지향점은 공정성, 공평성이며, 삼권분립의 극복·발전과 공정, 공평한 민본주의의 완성을 위한 공약의 이론적 접근을 제안했다. (끝)

[첨부 사진]

